2025-02-10 (2025-05호)

▶ 달러/원 주간 전망

• 굵직한 재료들 줄줄이..박스권 탈피할까

서울, 2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관세정책, 물가지표 및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발언 등에 글로벌 금융시장 반응 따라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45-1475원이다.

최근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관세정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속 1450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등락하면서 레인지 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금주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달러 강세 보폭을 넓힌 터라 원화는 이에 따른 시장 전개 상황 따라 약세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 최근 원화가 자체적인 재료보다는 달러와 위안과 연동성을 강화하고 있는 터라 대외 시장 반응을 쫓는 원화 흐름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전주말 뉴욕 역외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현물기준으로 10원 가까이 올랐다.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달러 강세와 위안 약세 재개 여부에 시장 관심은 다시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역외 달러/위안은 7.3위안대 저항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예상보다 낮은 고시환율 제시 스탠스가 계속될지도 여전한 관심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미국 1월 물가지표도 발표된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로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는 등 최근 끈적한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견조한 고용시장마저 지속되면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더욱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물가지표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은 예민할 수 있다. 로이터가 예상한 1월 CPI 전월비 상승률은 전달 0.4%보다 소폭 낮은 0.3%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주중 의회에서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경로와 트럼프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동성에 취약한 시장 상황에서 나오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굵직한 재료와 함께 미국 국채 입찰도 예정돼있어,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의 단기 방향성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동안 상하방이 막혀온 달러/원 환율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봐야할 듯하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이슈

2월10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변하는 관세 결정은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였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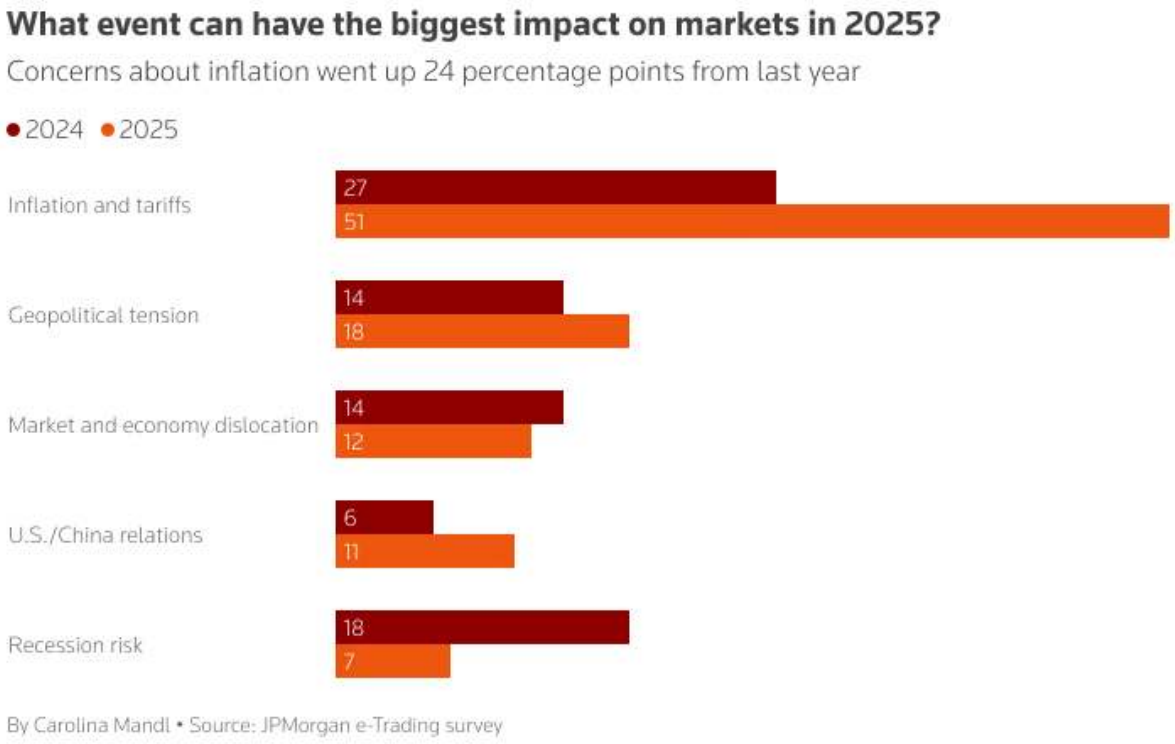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같은 일반적인 이벤트와 함께 관세에서 지정학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관세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발효하기 몇 시간 전에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은 환호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관세 협상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인지 아니면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키고 미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컬럼비아 스레드니들 수석 EMEA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벨은 트럼프가 일부 관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그가 다시 관세를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벨은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이란이 신흥국의 무역에서 미국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 美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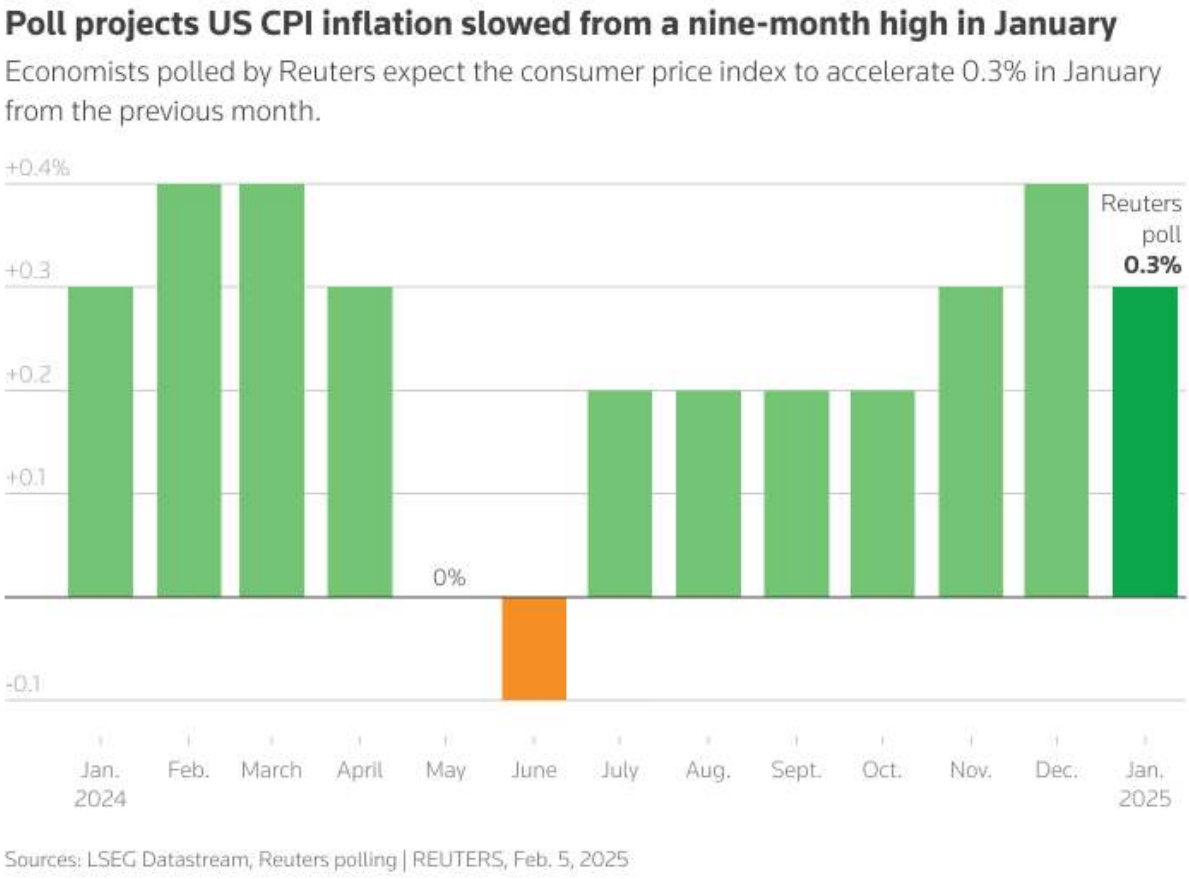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여러 연준 관계자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한 후 미국 소비자물가의 주요 지표가 발표되어 투자자을 시험할 예정이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2월12일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

다.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외한 근원 CPI는 4개월 연속 거의 움직이지 않은 후 완화되어 투자자들을 고무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연준이 완화를 중단하고 트럼프의 관세 추진이 시작된 이후 통화정책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 간의 장기적인 맞대결에 대비하고 있다.

단기적인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와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유예를 허용할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며 경기 회복의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이기 때문에 한때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해야 했던 중국 시장을 기피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 유럽 강세

유럽은 저렴한 밸류에이션, 실적 성장, 모멘텀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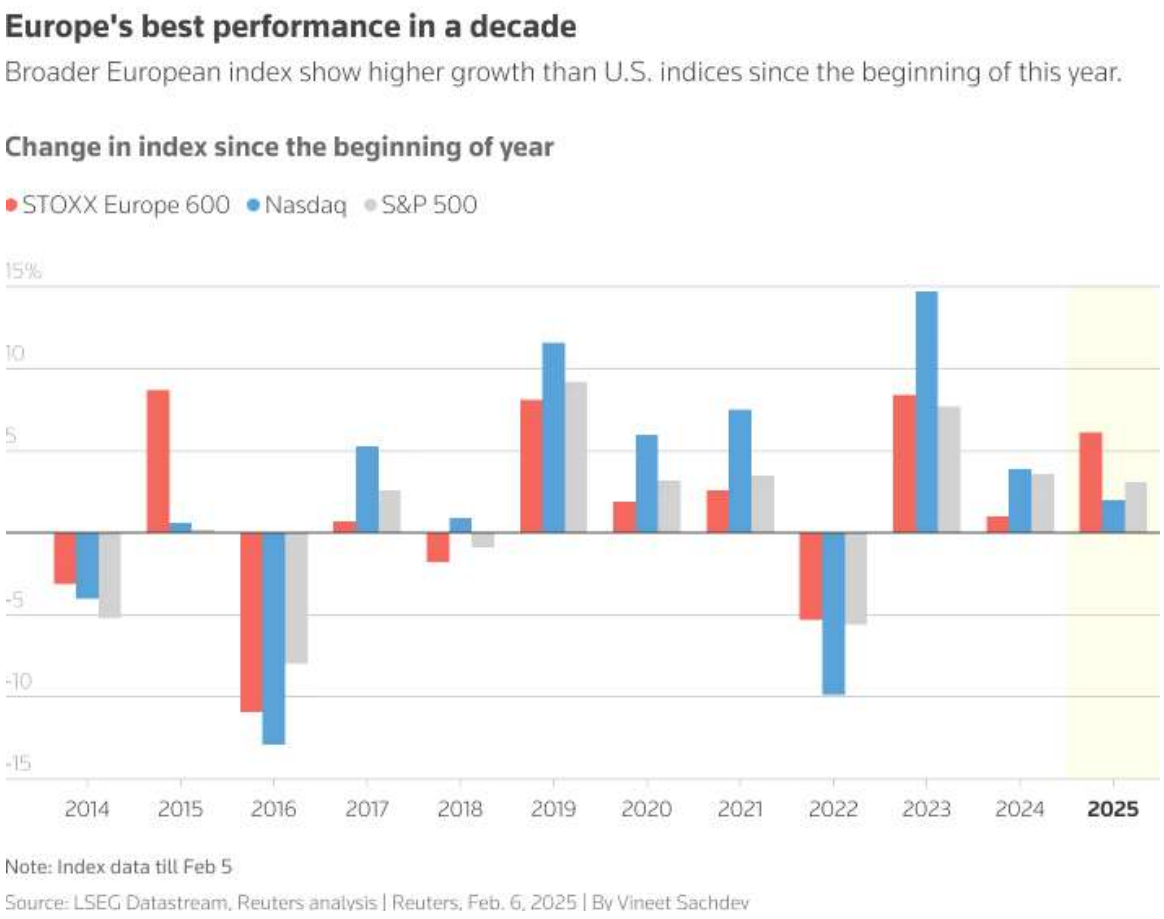
오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런던, 밀라노, 파리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스톡스600(.STOXX)은 2025년 첫 6주 동안 월스트리트 대비 2015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력을 고려할 때 이 랠리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단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촉매제가 있다. 관세는 와일드 카드이지만, 별이 일치한다면 독일이 재정 정책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유럽의 수익 성장률은 작년 1%에서 2025년 7.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수익은 더 느린 속도로 성장하겠지만 여전히 유럽보다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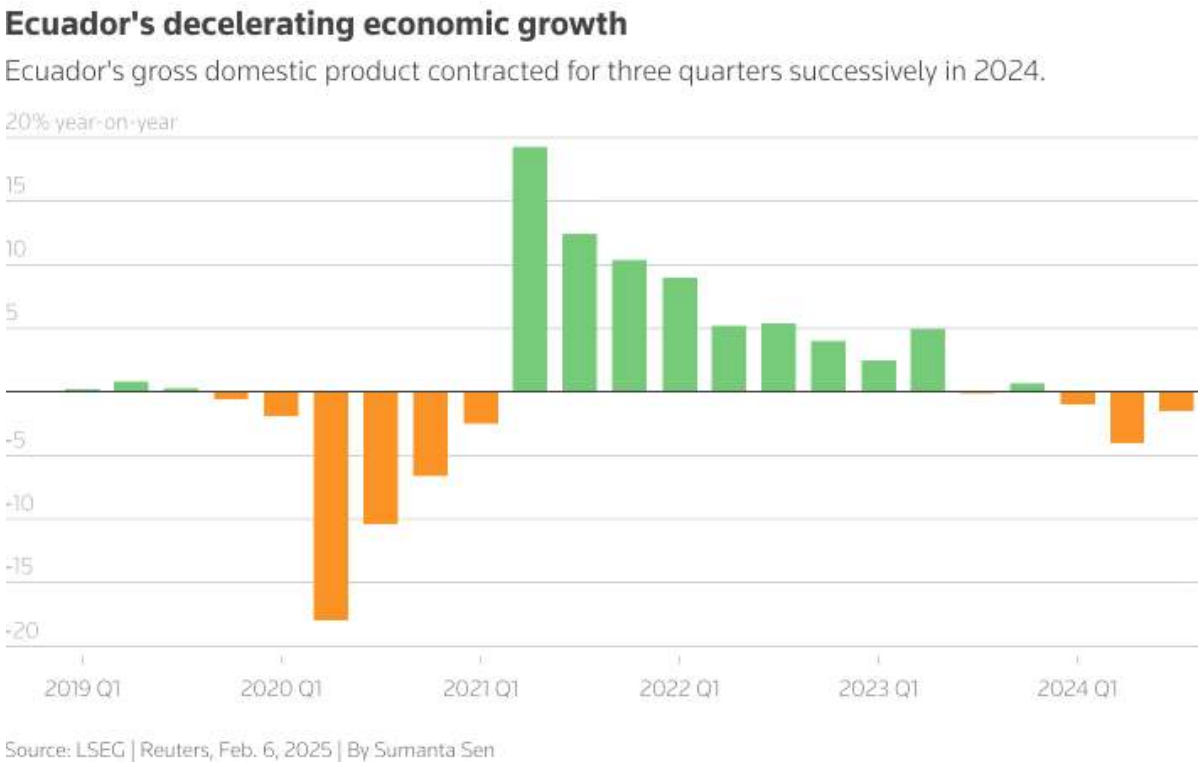
⊙ 에콰도르 대선

에콰도르의 선거는 지루할 틈이 없지만, 일요일의 투표는 특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에 맞선 이는 2023년 총선에서 패배한 루이사 곤잘레스다. 이 좌파 변호사는 에콰도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출구 조사에 따르면 바나나 사업 상속자인 노보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4월 2차 결선 투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과제는 여전히 폭력적인 마약 조직에 대처하고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광범위한 정전 사태가 발생한 후 또 다른 부채 위기를 피하는 것이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소용 돌이치는 관세 논의 속 인플레이션 데이터 시험대..파월 의장 의회 증언도 변수**

뉴욕, 2월10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월가의 희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속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미국 주식 시장을 시험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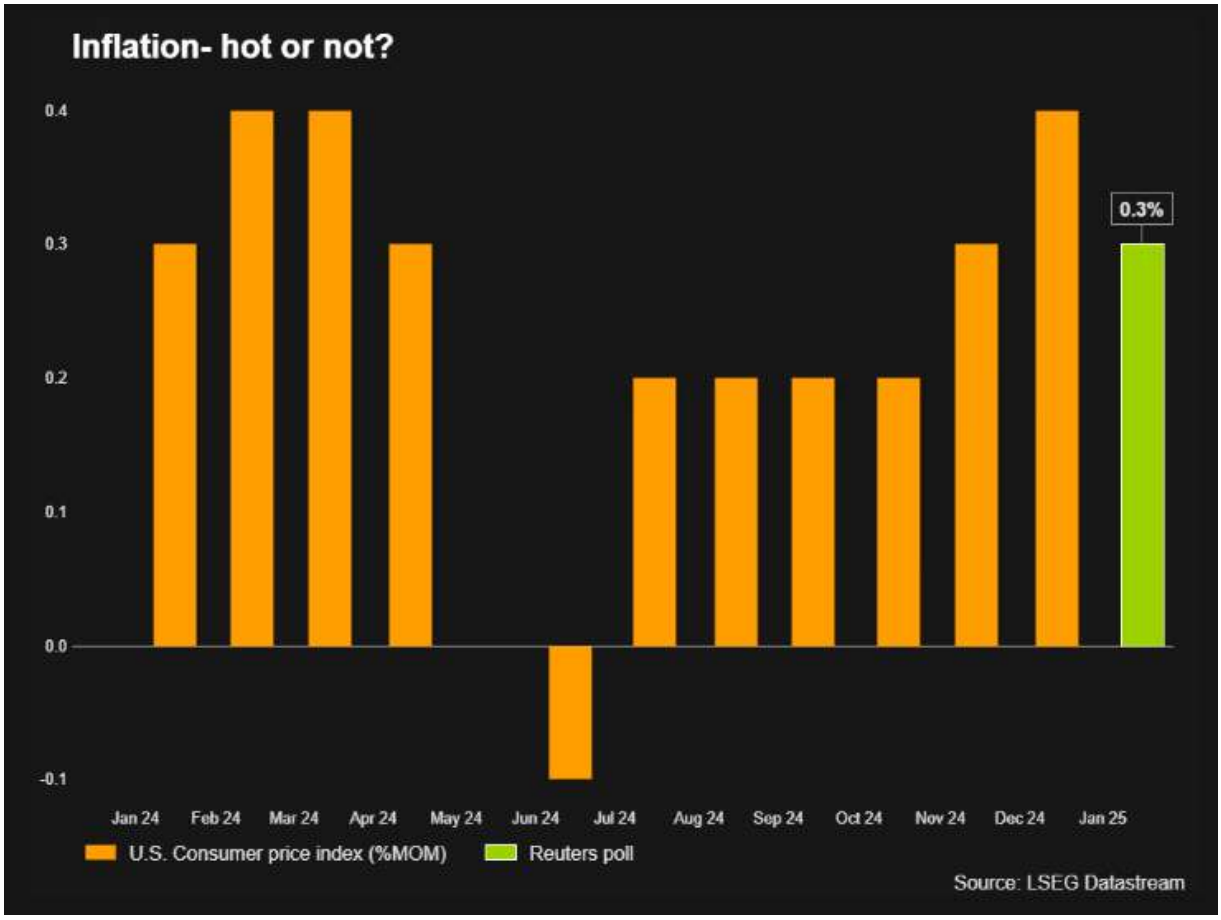
벤치마크 S&P500 지수.SPX는 지난 주 트럼프의 미국 최대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헤드라인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수준보다 약 1%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널리 간주돼 연방준비제도(연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연준은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지난달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일시 중단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오는 수요일에 발표되는 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인플레이션에 관한 최신 수치를 제공한다. 최근 4천명이 넘는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관세가 올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찰리 리플리는 "인플레이션은 2025년 금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와일드카드"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시장은 분명히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1월 CPI는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몇몇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1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CPI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시기이므로 데이터가 발표될 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B.라일리 웰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건은 "우리는 확실히 (CPI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연준 기준금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두 차례 인하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금요일 혼조세를 보인 미국 고용 보고서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 1월 일자리 증가율은 예상보다 둔화되었지만 4%의 실업률은 건강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올해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철회하고 있다. 지난 주 모간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2025년 통화 정책 경로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며 올해 6월에 한 차례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모간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이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관세 부과 소식이 처음 알려진 후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주일 최고치인

20.42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약 15까지 하락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채권 전략가인 로렌스 길럼은 지난 목요일 서면 논평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관세 위협이 시장 변동성을 되살렸다"고 말했다.

연준의 금리 전망은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할 때 더 명확해질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코카콜라KO.N, 시스코CSCO.O, 맥도날드MCD.N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기업 실적 보고서도 주목할 만하다.

LSEG IBES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4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해 1월 초의 9.6% 성장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림벤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은 전반적으로 주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2월10일 (월)
⊙ 금융감독원: 원장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10:00)
⊙ 기획재정부: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 (10:00)
⊙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 (11:00)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AI와 한국경제 (12:00)
⊙ KDI: KDI 경제동향(2025.2) (12:00)
⊙ 한국은행: 신성환 위원 출장 (6~11일, 대만중앙은행, AMRO, 국제신용평가사)

2월11일 (화)
⊙ 관세청: 2월1일~10일 수출입 현황
⊙ KDI: KDI 경제전망 수정(2025.2) (12:00)

2월12일 (수)
⊙ 기획재정부: 1차관 2025 대외경제정책방향 세미나 (08:30)
⊙ 한국은행: 2025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15:00)

2월13일 (목)
⊙ 기획재정부: 2025년 2월 재정동향 (10:00)
⊙ 한국은행: 총재、금통위원 금통위 본회의 (10:00)
⊙ 한국은행: 2024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2월14일 (금)
⊙ 한국은행: 2025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금융감독원: 2025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통계청: 2025년 1월 고용동향 (08:00)
⊙ 기획재정부: 2025년 2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한국은행: 2025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2월1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2월10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12월	1,362.3B	3,352.5B
2월10일	18:30	유로존	센틱스지수	2월	-16.3	-17.7
2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월	7.2%	7.3%
2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월	4,500.0B	990.0B
2월10-17일		중국	FDI (YTD)	1월		-27.10%
2월11일	00:00	미국	고용 추이	1월		109.70
2월11일	20: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1월		105.1
2월12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2월7일 주간		224.8
2월12일	22:30	미국	CPI MM, SA	1월	0.3%	0.4%
2월13일	04:00	미국	연방예산	1월		-87.00B
2월13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1월	0.3%	0.3%
2월13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12월	-0.6%	0.2%
2월13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월3일 주간	216k	219k

2월13일	22:30	미국	PPI MM	1월	0.3%	0.2%
2월14일	19:00	유로존	고용 QQ	4분기	0.2%	0.2%
2월14일	19:00	유로존	GDP QQ	4분기	0.0%	0.0%
2월14일	22:30	미국	수입물가 MM	1월	0.4%	0.1%
2월14일	22:30	미국	수출물가 MM	1월	0.4%	0.3%
2월14일	22:30	미국	소매판매 MM	1월	-0.1%	0.4%
2월14일	23:15	미국	산업생산 MM	1월	0.2%	0.9%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2월10일 (월)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CB 연례보고서 관련 토론 참석 (오후 11시)

2월11일 (화)
⊙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캔터키대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0시50분)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출석 (12일 오전 0시)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페이스대학교서 연설 (12일 오전 5시30분)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아이오와 은행인연합회 컨퍼런스서 연설 (12일 오전 5시30분)
⊙ 휴장국가: 일본

2월12일 (수)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출석 (13일 오전 0시)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NACD 애틀랜타 지부 행사에서 연설 (13일 오전 2시)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설 (13일 오전 7시5분)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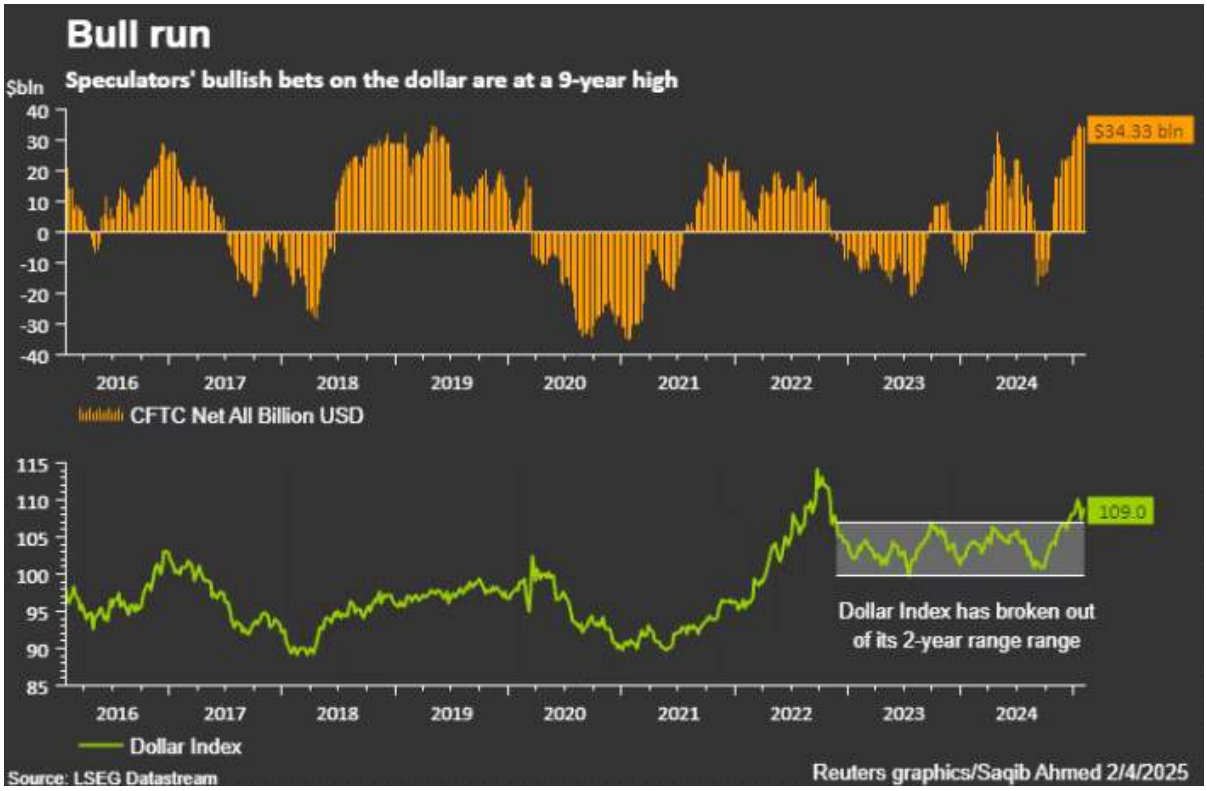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달러 강세로 기업 환헤지 급증

뉴욕, 2월6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달러 가치를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면서 기업 재무 담당자들이 달러 강세로부터 기업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달러지수 .DXY 는 9월 저점 대비 약 7% 상승했으며, 투자자들이 달러가 견고한 미국 경제 성장과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를 매수하면서 1월에 기록한 2년래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

투기세력들이 달러 강세 베팅에 나서면서 달러 순롱포지션은 거의 9년 만의 최대치인 35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 계약, 통화 옵션, 스왑을 자주 사용하는 기업 재무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신중한 속도로 움직인다. 하지만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거나 당분간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견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U.S.뱅크의 외환 영업 최고 책임자인 폴라 코밍스는 "기업 커뮤니티는 행동이 느리고 신중하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해외 수익에 상당한 익스포저를 가진 기업들이 이러한 예상된 현금 흐름 헤징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고객들로부터 듣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달러 강세 지속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AAPL.O 및 마이크로소프트 MSFT.O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달러 강세가 향후 몇 달 동안 재무 실적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의 헤지 활동의 총체적인 수준은 거의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장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잠재적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달러 강세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밀테크FX의 최고 경영자 에릭 허트먼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 결과, 시가총액 1억 달러 미만의 북미 기업들은 투표 이후 달러 강세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소규모 기업의 절반은 정책 변화가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위협이 달러 랠리를 촉발하고 변동성 급증을 촉발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외환시장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일부 기업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달러 강세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수익을 달러로 전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수출 기업의 제품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런던의 볼린저 그룹의 외환 시장 분석가인 카일 채프먼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달러 강세 이후 변동성이 커진 환경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기업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헤지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 시장 외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헤드라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 담당자들이 시장 변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관세 문제

이러한 헤지 활동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채프먼은 "트럼프의 재선 이후 달러 강세 환경에 접어들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 9월 이후 랠리의 규모와 속도는 사람들에게 환율 변동이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기업이 불리한 환율 시장 움직임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예상했다.

1월 말 애플은 달러 강세로 인해 현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존슨앤존슨(JNJ.N)도 불리한 환율 움직임으로 2024년 매출의 2%인 17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달러 강세로 인해 3분기 매출 성장률이 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지 예산이 부족하고, 헤지에 묶을 수 있는 자본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적의 가격으로 고급 헤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강달러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밀테크FX의 허트먼은 "달러 강세로 인해 소규모 기업의 재무팀은 새로운 표준에 적응하기 위해 외환 리스크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헤지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 회사인 채텀 파이낸셜의 매니징 파트너인 아몰 다르갈카르는 2024년에 대기업들이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로 헤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예상보다 더 많이 연락했으며, 이제 소규모 회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관세 관련 헤드라인이 헤지 활동의 회복을 촉발했을 수도 있지만,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헤지를 실행하는 능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긴장이 더 커지면 이러한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경고했다.

코페이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칼 샤모타는 "많은 기업의 경우 기본 현금 흐름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일부는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하고, 일부는 해외 지역의 고객 매출 감소에 대처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분석)-美 채권 시장, 베센트의 10년물 수익률 공약에 미지근한 반응인 이유**

뉴욕, 2월7일 (로이터) - 미국 채권 시장에서 6일(현지시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억제하겠다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공약이 회의론에 부딪혔다.

베센트는 수요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연방준비제도에 금리 인하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신과 대통령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출 삭감이 재정 전망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US10YT=RR 은 모기지 및 신용카드 금리와 소비자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준의 단기 금리는 자금 시장과 간접적으로만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채권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정부 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무역 및 재정 정책이 장기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베센트의 발언에 다소 확신을 갖지 못했다.

ING의 미주 지역 연구 책임자 파드라익 가비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더 큰 문제는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과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고착화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의제는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에너지 가격 억제 계획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경기 둔화 조짐,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채 안전자산 매수, 장기 국채 발행 증가가 임박했다는 시장의 우려를 완화한 이번 주 재무부의 가이던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요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43%로 7주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목요일에는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번 주 초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트럼프의 징벌적 관세 위협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단기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였고, 장기 수익률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연기한 후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무역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에 드리워져 있다.

JP모간체이스의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은 관세와 인플레이션이 2025년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에버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마크 말렉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더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문제는 10년물 수익률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 마찰로 인한 예상 인플레이션과 적자 지출 증가 및 그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최근 10년물 금리가 상승한 것은 시장이 한 것이다"라고 메모에서 말했다.

재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모호한 가정'

지난 수요일 베센트는 채권 시장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제가 "비인플레이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물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출을 줄이고, 정부 규모를 줄이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금리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0년물 수익률은 11월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한 10월 초 이후 약 70bp 상승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베센트는 정부에 '지출 문제'가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1월20일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가 첫 임기 때인 2017년에 법에 서명하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감세 정책의 갱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회 예산국(CBO)의 추산에 따르면 감세 제도가 갱신되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4조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2조 달러까지 줄이려는 정부효율성국(DOGE)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했다.

ING의 가비는 DOGE의 노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공을 추정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모호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부회장이자 전 댈러스 연은 총재였던 로버트 카플란은 높은 정부 부채 수준이 향후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정 측면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거기서 약간의 개선을 보게 될 것이다. 수익률 곡선은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